

경남도, ‘경남형 피지컬 AI’ 개발 등 제조 혁신 1.2조 투자

특화기술 개발 1조 이상 투입
창원국가산단 AX 실증 추진
‘대한민국 제조 AI 메카’ 실현

경남도는 AI 기반 제조 혁신에 1조 1909억원을 투입, 제조업의 대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2959억원과 비교해 4배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 투자는 경남이 대한민국 제조업 AI 전환의 중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도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정 과제 반영부터 산업통상부·중소기업벤처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 협의, 국회 예산조율까지 단계적 전략을 펼쳐며 정부 정책을 지역 성장 동력으로 구체화해 왔다.

경남도는 1조 1909억원 규모의 AI 제조 혁신 프로젝트로 도내 제조 기업을 전통 제조에서 AI 제조로 전환시키는 산업 혁신을 본격화한다. 투자는 첨단 기술 개발, 산업 전반의 AX 확산, AX를 위한 인프라 조성, AI 고급 인재 양성 등 4개 분야에 집중된다.



경남도 이미화 산업국장이 13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남 제조 AI 대전환 추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남도

제조 AI 특화 기술 개발에는 1조 355억원이 투입된다. 제조 AI는 실제 기계와 설비 제어, 물리적 충돌과 오차 통제가 필요한 고난도 기술로 산업별 공정 특성에 맞는 맞춤형 AI 개발이 필요하다. 경남은 대중소 제조 기업이고 루 분포하고 우주항공·조선·방산·원자력 등 첨단 산업이 모인 제조 생태계를 갖춰 제조 AI 분야를 이끌 최적 입지를 보유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경남형 제조 피지컬 AI 개발 및 실증 시범사업, 가전 제

조 산업 AI 기반 밸류체인 협업 기술 개발, 발전용 가스터빈 블레이드 AI 자율 연속 생산 시스템 기술 개발, 항공기 기체 부품 무중단 가공 기반 무인 생산 AI 자율제조 핵심 기술 개발,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실증 확산 등이 진행된다.

AX 확산을 위해 창원국가산단 AX 실증산단을 추진한다. 대표 AX 선도 공장을 지정해 생산 공정을 실증하고 개발 기술을 관련 기업에 확산해 제조 기업의 AI 전환 기반을 다진다는 계획

이다. 국산 AI 기술 기반 LG전자·대중소 상생형 협력 모델로 도내 중소기업의 AI 기술 도입을 돕는다.

경남도는 2018년부터 스마트 공장 보급 사업을 펼쳐왔으며 구축 수는 해마다 증가해 전국에서 경기도 다음으로 많은 3014개 기업이 스마트 공장 구축을 완료했다. 최근 3년간 스마트 공장 구축은 2023년 134개사, 2024년 238개사, 2025년 279개사로 늘었다.

제조 AI 메카 실현을 위한 인프라로는 경남 제조 AI 데이터 센터 구축, 제조업 AI 융합 기반 조성을 추진한다.

AI 전환을 이끌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AI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반도체 아카데미 등 인재 양성 사업을 펼쳐 올해 490명이 지역에서 양성돼 기업에 공급될 예정이다.

이미화 경남도 산업국장은 “경남은 조선·방산·자동차 등 방대한 산업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 제조 AI 도입의 최적지”라며 “경남 제조업이 글로벌 시장을 지속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경북도

“中企 운전자금 신청하세요”

경북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최근 고물가·고환율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1,2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접수 기간은 14일부터 28일까지이며, 융자 희망 기업은 대출 취급 은행과 융자 금액 등에 대해 사전 협의한 뒤 경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기업 소재지 시·군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융자 추천 결과는 경북도경제진흥원의 서류 심사를 거쳐 16일부터 시·군으로 통보될 예정이며, 추천이 확정된 기업은 설 연휴 전인 2월 13일까지 대출 실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부산시

구포시장서 ‘선 결제’ 캠페인

부산시는 지난 13일 오후 북구 구포동 ‘정이있는 구포시장’을 찾아 ‘부산형 선(善)결제’ 캠페인을 열고 상인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현장을 직접 찾아 상인들을 격려하고, 선결제 확산을 통해 전통시장 및 골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상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시장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 등 다양한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명절을 앞둔 시장 분위기를 비롯해 전통시장 운영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 어려움, 소비 촉진과 시장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공유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포항시

20일부터 택시 기본요금 인상

포항시는 이달 20일부터 택시 기본 요금을 현행 4000원에서 4500원으로 50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택시 요금 인상은 물가 상승과 택시업계의 경영 여건 악화를 반영해 이뤄졌다.

기본운임은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오르며, 거리 운임은 100원당 131m에서 128m로, 시간운임은 100원당 31초에서 30초로 각각 조정된다. 심야할증 운임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부산시교육청

교사 44명 ‘수업혁신대회’ 입상

부산시교육청은 교육부 주최 ‘2025년도 전국 수업혁신 사례연구대회’에서 부산 교사 44명이 입상했다고 밝혔다.

부산 지역에서는 총 84명의 교사가 출품했으며 이 가운데 초등교사 37명, 중·고등학교 교사 6명, 특수교사 1명이 수상했다.

특히 초등교사 12명, 고등학교 교사 1명, 특수교사 1명 등 14명이 최고 등급인 전국 1등급을 받았다. /부산=이도식 기자

전북도, 벤처펀드 1조 시대 ‘활짝’ 전남도, 지역 축제 활성화 2억 투입

기업 ‘성장의 사다리’ 역할
공장설립·IPO 등 성과 이어져

전북특별자치도가 비수도권 최초로 누적 벤처펀드 1조 원 시대의 새 역사를 썼다. 단순한 수치 달성을 넘어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는 심상치 않다. 전북의 펀드가 지역 기업에는 ‘성장의 사다리’로, 수도권 기업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인식되며 투자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13일 도에 따르면 지역 창업의 한계를 넘어 기술력에 날개를 단 대표 사례로 반도체 검사 장비 전문기업 (주)아이에스피가 꼽힌다. 전북에서 태동해 도 펀드의 지원으로 도약한 이 기업은 20억 원의 도 펀드를 포함해 총 55억 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기업 성장이 지역의 기회로 이어지며 청년의 꿈을 담은 이야기도 있다. 이차전지 전문 기업 에너메바터리솔루션(주)은 도 펀드 투자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 모델이다. 15억 원의 도 펀

드 투자를 받아 총 4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한 이 기업은 2022년 완주군에 공장을 설립한 후 전체 직원 70명 중 50여 명을 지역 인재로 채용하며 지역 경제에 온기를 더하고 있다.

수도권 기업도 전북으로 향하고 있다. 그린바이오 분야의 (주)광세는 전북 펀드를 마중물 삼아 익산에 동지를 틀고 글로벌 도약을 준비 중이다. 본사와 공장을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로 전격 이전한 광세는 15억 원의 도 펀드를 포함해 총 80억 원의 투자 유치를 완료하며 양산 공장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북에서 코스닥까지, 연구소 기업의 비상도 펼쳐졌다. 전북 펀드 투자의 최고 결실은 기업공개(IPO)다. 군산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둔 차량 보안 솔루션 기업 (주)페스카로는 10억 원의 도 펀드 투자를 시작으로 총 3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지난 12월 코스닥 상장에 성공하며 전북 투자 생태계의 지력을 증명했다. /전북=정훈 기자 taiji1819@

‘2026년 전남도 대표축제’ 10개 선정

전라남도는 시군 대표 지역축제를 대상으로 축제심의위원회를 열어 장흥 물축제 등 10개를 ‘2026 전라남도 대표축제’로 선정, 세계로 도약하도록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선정된 대표축제는 ▲최우수 ‘정남진 장흥 물축제’ ▲우수 ‘고흥 유자축제’, ‘보성다향대축제’, ‘함평 대한민국 국향대전’ ▲유망 ‘목포항구축제’, ‘광양매화축제’, ‘담양대나무축제’,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 ‘해남미남축제’,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다.

전남도는 대표축제로 선정된 10개 축제에 최우수 5000만원, 우수 3000만원, 유망 1000만원 등 총 2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영주 전남도 관광체육국장은 “대표축제는 단순한 지역 행사가 아니라 전남의 얼굴이자 관광산업의 핵심 자산”이라며 “축제의 질적 수준을 높여 전국을 넘어 세계로 도약하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양수병 기자 ysn6313@

울산시, ‘깨끗한 클린울산’ 만든다

맑은 공기질 실현 등 정책 목표 제시

울산시가 올해 환경 분야에 전년 대비 9.0% 증가한 447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깨끗한 클린울산’ 조성에 나선다.

시는 2026년 환경 정책의 핵심 목표로 4개 분야를 제시했다.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 맑은 공기질 실현, 기후 변화 대응력 제고, 자원 순환 체계 구축 등이다.

먼저 지난해 3월부터 운영 중인 울산 클린업 전담팀을 통해 전 지역 환경 정비 사업을 지속 전개한다. 연말까지 도시청결 기동대를 상시 가동하고, 환경단체와 공공기관, 구군에 정비 물품을 제공해 국가산단 가로변과 계절별 맞춤 정비를 진행하며 2028년 국제정

원박람회 준비에도 속도를 낸다.

생물 다양성 확보와 울산국가지질공원 조성도 추진된다. 겨울철 야생동물 조사로 생물종 목록을 정비하고, 독수리 생태체험장과 철새여행버스 운영 등 시민 참여형 생태관광을 활성화한다.

대기 환경 관리도 강화된다.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가동해 소각시설 배출량 감축, 5등급 경유차 운행 제한 등 3개 분야 16개 사업을 펼친다.

하수처리 인프라 확충 사업도 진행된다. 도시 확장과 처리 용량 부담 완화를 위해 청량·여천 지역에 하수처리 시설을 신설하고, 회야·온산 시설을 증설한다. /울산=박기선 기자 metrobusan7@

대구시, 1조 규모 中企 경영안정 자금 지원

대구시가 1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대구시는 관내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비용 경감 및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올해 융자 지원 규모를 1조원으로 확정했다는 것이다

이는 내수침체 장기화, 고금리와 고환율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지원 자금은 상반기에 집중 투입할 예정으로, 특히 올해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1402억 원 규모의 육성자금 3

종을 신설한다.

신설 육성자금은 크게 세 가지로 모빌리티, AI로봇 등 대구형 특화·혁신기업에 대한 500억 원 규모의 지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력 지원을 위한 자금 지원 500억 원, 지역전략산업육성자금 402억 원 등이다.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대구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점에서 가능하다.

/대구=김강석 기자 presskim@